

함께 하니, 참 좋다



사단법인 사랑터 이명우 회장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후회한다. 사랑터 이명우(63) 회장 역시 그렇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간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렇기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31년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날이 깊어진 사랑은 그를 다시 숨 쉬게 한다.



고통 속에 핀 사랑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날 오후, 양손 가득 짐을 든 이명우 회장이 맘을 흠치며 걸어들었다. 장을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시장에서 감자, 양파, 다시마 따위를 사 온 것이라고 답을 건네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 회장을 따라 들어선 작은 빌라 1층엔 사랑터 회원들의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회원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장 본 것들을 정리도 하는데 지금은 창고나 다름 바 없네요.” 휴지며 라면, 식용유

따위가 가득 쌓인 사무실에 그가 머쓱해 하며 말했다. 하지만 떠날 채비를 마친 물품들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간의 활동으로 받은 상자들은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사랑터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사랑터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도움이 필요한 곳 십여 군데에 후원 물품을 전달합니다. 또 음식을 만들어 경로잔치를 열어드리기도 하고 목욕과 도배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200여 명의 회원이 후원이나 재능기부를 통해 한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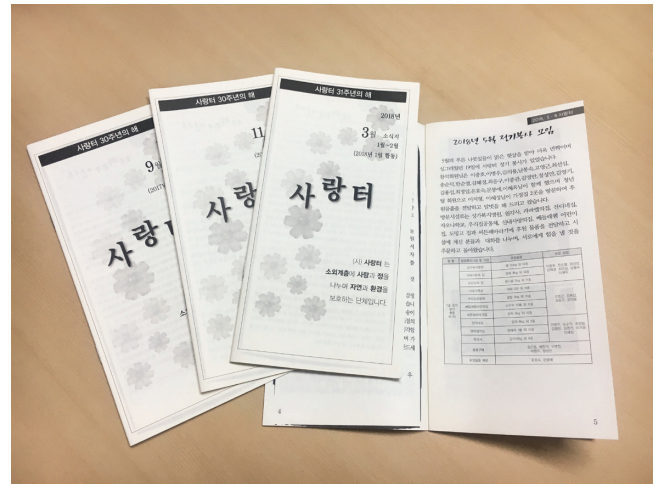
아침저녁은 물론 새벽도 가리지 않고 구리농수산물시장 등을 찾아 직접 장을 보는 것도 예삿일이 아닌데, 그는 두 달에 한 번 사랑터 활동을 꼼꼼히 기록한 소식지를 낸다.

“소식지를 보면 어떤 걸 샀고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갖다 주었는지 구매 내역부터 후원 내용까지 기록해요. 결산 보고서도 만들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100% 투명하게 공개하죠.”

이토록 섬세하고 꾸준한 사랑터 역사의 시작은 이명우 회장의 군 복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투경찰로 입대한 그는 훈련 중 오른쪽 정강이뼈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당시엔 이름도 생소한 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골수암 판정을 받고 다리를 절단하라는 말과 함께 6개월의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어요. 감히 예상하지도, 오롯이 감당하기도 벅찬 시련에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부처님 가리지 않고 절박하게 기도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다. 건강을 회복하면 남은 생





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 놀랍게도 그를 괴롭히던 암세포는 조금씩 사라졌고 몇 개월의 재활 끝에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군대에선 당장 훈련에 투입될 수 없으니 의가사제대를 하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죠. 그 덕분에 건강하게 만기제대를 할 수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제대한 그는 이후 요식업도 해보며 사회생활에 나섰지만, 자신이 다짐했던 나눔의 삶과는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찰나 마침 파출소 앞의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글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고심 끝에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단히 결심하고 시험을 준비한 끝에 경찰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당시 식품구매 담당을 맡아 노량진 수산시장, 경동시

장 등 여러 시장을 돌아다녔죠. 그러던 중 마장동의 정육점 상인들과 좋은 연을 맺게 되었고, 뜻이 잘 맞는 이들과 함께 봉사모임을 시작한 게 지금의 사랑터예요.”

봉사 모임이 정식단체로 설립된 건 1987년 1월. 다섯 명에서 시작된 단체는 도움을 주는 회원들이 늘어감에 따라 현재 노인 및 무의무탁 환자들을 위한 성가복지병원, 미혼모를 보호하는 자오나 학교, 시각장애 아동을 돌보는 라파엘의 집 등 열 곳이 넘는 시설을 후원하고 있다.

“처음엔 이런 사무실도 없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길바닥에 후원 물품을 쌓아두고 정리했어요. 지금에 비하면 훨씬 열악한 환경인데도 힘든 줄 몰랐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위해 남양주를 찾기도 했고 태풍 루사 때는 동해로, 매미 때는 진주에 가서 수해 복구를 도왔어요.”

사무실이 없던 때엔 각종 장거리를 집으로 가져가 집안에 흙먼지가 튀굴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동에 변쩍 서에 변





쩍 홍길동이 따로 없으니 가족들의 반응이 자못 궁금했다.

“가족들이 저의 가장 큰 지원자예요. 아내가 제일 많이 도와줬고, 두 아들도 중학생 때부터 봉사를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마흔이 다 된, 우리 사랑터 청년단의 일원이죠. 이 자리를 빌려 언제나 고맙고 사랑한단 말 전하고 싶어요.”

차례차례 그의 활동 기록들을 살펴보면 중 앨범 뒤편에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빼곡한 헌혈증이 나타났다.

“더 희생하고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에 헌혈을 많이 했어요. 대한적십자회가 생기기 전엔 혈액관리협회가 있었는데 그땐 산 기록도 안됐던 때라 횟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아팠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1년간 나눔과 봉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이명우 회장. 자신을 기다리는 이들의 눈빛을 생각하면 힘들고 피곤할지언정 찾아가서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먼저였다.

“IMF 외환위기 시절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준 일이 기억에 남아요. 매일 12시 10분 전까지 도시락을 만들어 학교 수위실에 맡겨 놓았죠. 점심시간 이후 다시 도시락을 수거해 설거지하고 다음 날 반찬을 만들고의 반복이었어요.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해서 하루에 수십 개의 도시락 싸는 일을 꼬박 2년을 했죠.”

이외에도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다. 지적장애 아동들과 함께 백화점 견학에 갔다 자동차 한 대를 사달라고 울고 떼쓰는 바람에 달래느라 진땀 꽤나 뻘 일도 있고, 부모님이 일하느라 바쁜 아이들을 위해 간식과 수업 자료 등 만반의 준비로 야심 차게 시작했던 야학은 아이들의 참여가 낮아 아쉽게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끝없이 흐르는

이렇게 잊지 못할 일들이 가슴과 머리에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그에게도, 사랑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공부를 더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근무 중이에요. 또 대파 하나 다듬지 못했던 회원들은 급식 봉사를 하면서 요리 실력이 부쩍 늘어 푹



딱 만들어내는 음식도 다양해졌죠. 이런 노력들 덕분에 사랑터는 VMS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로 인증받아 공식적으로도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에 차근차근 성장하고 발전해온 사랑터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사랑터를 이어받아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어려운 사람들 없이 지낼 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터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뜻을 모아준 회원분들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하고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라죠. 그리고 우리 단체가 언제나 많은 분께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 다음 사람이, 그다음 사람이 끝없이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던가. 작게 일렁이는 물결로 시작된 이명우 회장의 사랑이, 사랑터의 나눔이 어느덧 깊고 진한 너울이 되어 우리 사회에 넘실거린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파동을 멈추지 않는다. 아무래도 그들은 어느 한 곳 빠짐없이 흘러 들어가는 큰 바다가 될 모양이다. 바닷길은 시원한 가을바람을 따라 더 깊이, 더 멀리 뻗어 나가며 또다시 가을이 오고, 그다음 가을이 와도 멈추지 않으리라.

진유정 기자 jin_yj@mcredit.co.kr



사단법인 사 랑 터

<후원계좌> 국민은행 031601-04-109908 예금주 : 사랑터
T.02-3675-2021

<http://www.sarangter.com>

<http://cafe.naver.com/sarangter01>